

美 긴축종료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 존재, 금리인상 필요할 것”

한은-세계은행 ‘서울포럼’

서머스 교수, 이창용 총재 대담
“연준, 올해 움직이지 않을 것
韓, 중립금리 상승 주의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과장된 생각이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6일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세계은행(WB) 공동 주최 서울포럼,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화상대담을 통해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美 연준, 12월 동결...내년 1차례 금리인상**

서머스 교수는 “오는 12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동결을 택하겠지만, 향후 1차례 금리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을 보면 지난해 6월 6.8%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포럼을 계기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5.4%, 3월 4.2%, 9월 3.4%로 떨어졌다. 개인소비지출은 개인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비한 비용을 합한 것으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줄고 수요가 감소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가 한달 간 20만~30만개씩 증가해 소비자의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10월말 기준 신규 일자리가 15만개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감소가 뚜렷해지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로 하락했다. 12월까지는 금리동결로 추세를 지켜본 뒤 목표치(2%) 달성을 위해 1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은 12월에도 움

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고 경제도 꽤 견조하다”며 “앞으로 한 번의 추가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중립금리 높아져...“한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날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의 중립금리도 글로벌 중립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립금리

는 물가와 경기가 안정될 수 있는 적정 금리수준을 말한다.

서머스 교수는 “실질 중립금리가 현재 1.5% 수준이고, 향후 물가상승률은 2.0~2.5% 사이가 될 것”이라며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0~1.5%포인트(p)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국의 국채금리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년만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장기물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머스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저성장 압박이 강해져 미국보다 한국의 중립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장기적 무역의존국가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중립금리를 순수 국내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실수다”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주현 “가계대출 증가속도 높은 금융사 밀착 관리”

(금융위원장)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김 위원장, 가계대출 관리강화 강조
공매도 관련 책임감 있는 역할 당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회사들은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성장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

년 104.5%, 2023년 101.5%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하에서 대출상품을 설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체 고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겠다”며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감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비트코인, 올해만 110% 상승... “강세장 이제부터 시작”

3만5000佛대 거래... 연고점 갱신도
내년 반감기 가능성에 추가상승 전망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10% 넘게 상승하면 ‘디지털 금(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추가 상승에 무게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48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일 3만5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만6700달러에 거래되면서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다.

6만5000달러(2021년 11월 14일)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이 기간 5만달러 넘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시장 침체에 진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시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선택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반기 3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이후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올 초(1만6700달러)부터 현재까지 총 112%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대급 강세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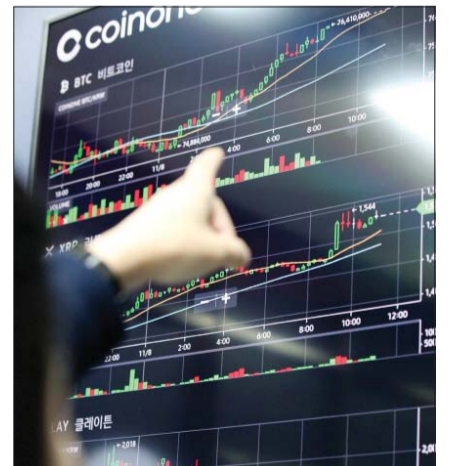
있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달러(2억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재료가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법원도 비트코인 선물ETF를 허용하면서 현물ETF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승인은 시간문제다 보인다.



올해 비트코인 상승률이 110%를 돌파하고 있다. /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시장 랠리를 놓고 잠재적 호재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어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